



Global Partners. 이 영대, 전 애림 선교사

'24년 06월

Brazil 연락: 55-11-2338-8172(아파트), 55-11-9-7394-3534(핸드폰)

E-mail: ydleeabrako@gmail.com WWW,ABRAKO.COM

한국 선교계도 나이가 많은 선교사 시대가 되고 있다. 저 역시 2,005년도에 59세에 평신도 선교사로 출발하면서 당시에는 '평신도 선교사'에 거부감이 많은 때였기에 브라질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에 목사 선교사들에게 많은 핍박(?) 혹은 서러움을 많이 받았고, '브라질 선교사 협의회'에 어렵지 않게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지만, 이듬해 정기 총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는 제명하자는 의안이 제기되어 위기를 당했지만,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저가 '브라질 선교사 협의회장'으로 피선되어 1년간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도 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한지 20년째가 되었지만, 파송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면 지원되던 생활비도 1/5로 삭감하더니 그것도 지난 4월로 중단되고 있고, 어떤 후원 교회도 나이가 많다면 지원되던 '선교 동역 헌금'도 중단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교사들이 70세가 되었다고 고국으로 귀국하여 은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 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은퇴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계속하여 사역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기도 한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밤에도 사역을 마치고 고속도로를 80 마일로 달리기도 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건강이 허락하시면 부르실 때까지 선교 사역을 계속할 생각이다. 저가 소속한 한국, GP 선교회, (Global Patners)는 오래 전에 '선교사 은퇴 규칙을 폐지한 바 있다.

2024년에 발표된 한국선교 현황에 따르면 70대 이후의 선교사들이 전체 선교사에서 30%가 되고 있다, 한국 통계청 발표에는 한국 인구의 70대 고령자 비율이 20%라는데, 일반 국민보다 선교사의 고령자 비율이 훨씬 높다, 나이가 많은 선교사들의 특징은 그 동안 축적된 선교 현장 경험, 지혜, 수많은 선교 풍파를 통과해 왔기에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선교 적응력과 수용 능력이 있기도 하다.

왜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70세가 되면 은퇴 선교사로 규정하여 선교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을까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다고 젊은 선교사들을 발굴하여 파송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

브라질, 상파울에 2005년도에 설립된 Instituto Biblico Abrako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가 신학생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한 결과 이제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신학생이 있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신학생들도 5명이 되고, 매일 성경 말씀을 30장 이상 읽는 신학생들도 매달 증가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제회복과 함께 보다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 후에 현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일군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은 현재,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기에 현지 교회들은 물론이요 50여개 교회가 되던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35개로 축소되는가 하면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마다 50대 이후의 사람들 뿐,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Africa MK 학교, 어린이들이 지난 6월 01 일에 암송대회를 가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13 장을 암송하여 서로의 재능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웅변 대회를 가지면서 어린이들이 국가의 요긴한 일군이 될 수 있는 능력, 자질을 갖추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장을 맡고 있는 브라질 교회가 파송한 Ivania 여 선교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언어에 능통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 학교로 성장시켜 국제 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frica, 신학교 강의를 위해 Brazil에서 지난 3월(Airton-모세 5경 전문가)에 이어 5월 01일에는 Hsiung 목사(선교학 전문가)가 3주간 현지에 머물면서 강의를 했는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100, 60, 30배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 Gilberto 목사(선교학 전문가)가 신학교 강의를 위해 출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폴투갈 항공사(TAP Ailine)가 독점 노선으로 비행기 요금이 상파울에서 Bissau 현지까지 3,050불(거리는 3700마일 정도)인데, 이전에 취항했던 비행기 요금이 1500불 선이었던 Morroco Airline도 가능한 빨리 상파울에서 Africa, Bissau로 취항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Africa 신학교가 Bissau 현지 정부에 정규 대학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허가서가 통과되어 신학과, 교육과가 개설되어 많은 목회자, 정규 학교 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역을 안내하고 있는 [www.abrako.com](http://www.abrako.com) 가 해킹을 당하여 지금 복구 중에 있는데, 가능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Site 도 함께 해킹을 당하여 교회의 주요 자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참조: [www.abrako.com](http://www.abrako.com))

### [기도 제목]

- 1)상파울 신학교, Africa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인재들’을 많이 세워 주소서.
- 2)Africa, Bissau 현지 정부에 ABRAKO 신학교가 정규 대학교로 승인될 수 있도록.
- 3)상파울 신학생, Erika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Tunisia로 출발했는데, 현지 언어 습득에 지혜를 주시도록
- 4)상파울 신학생, Ana Lucia도 근무하는 병원 일에 메이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할 기회를 주시도록
- 5)브라질, Africa를 비롯해 한국 경제를 부흥시켜 많은 동역 교회, 후원자들을 세워 주소서.
- 6)후원 교회, 후원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소서.
- 7)상파울시, 근처에 있는 Mogi das Cruzes시에 ‘선교 학교’가 복교되든지, 다른 곳에 선교 학교가 시작 될 수 있게 해 주소서.



Africa, MK 어린이들



Africa, MK 어린이들

